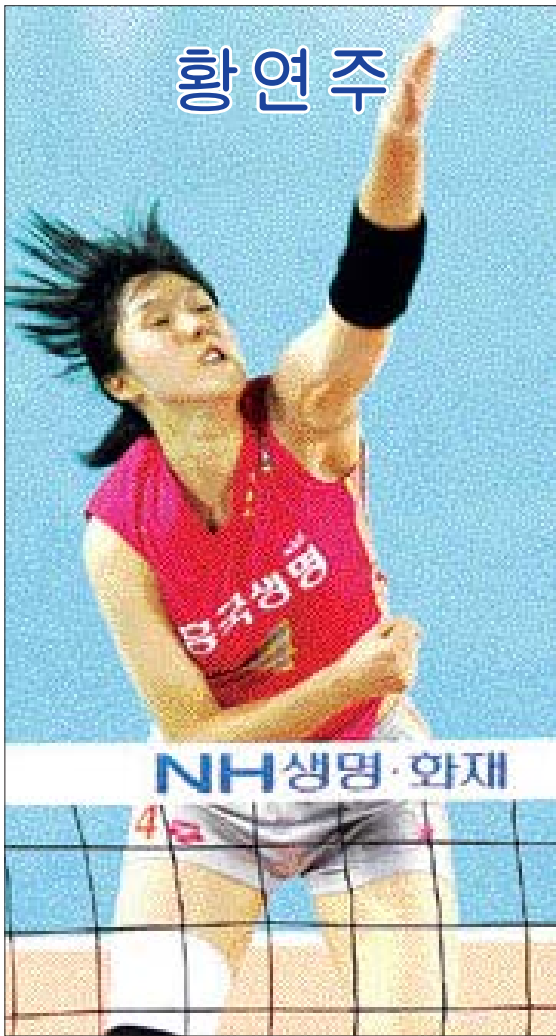


세계적 양산지의 환경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황연주

### ‘미녀 샹포’ 있음에... 흥국생명 파죽의 9연승

‘미녀 군단’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프로배구 겨울리그 코트에서 거침 없는 연승 행진을 계속하며 통합우승 3연패 목표 달성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 9일 도로공사와 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두며 파죽의 9연승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지난해 12월1일 KT&G와 개막 경기에서 1-3으로 진 뒤 한 번도 패전이 없었다.

개막전 패배를 안졌던 KT&G와 2라운드 대결에서는 3-0 완승으로 설욕했다.

지금 같은 상승세라면 여자부 최다승기록을 갈아치우며 정규리그 우승까지 노려볼 만하다.

흥국생명은 지난 시즌 2라운드 후반부터 11연승을 달려 알제까지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하며 여세를 몰아 챔피언결전전까지 제패해 통합우승 2연패를 달성했다.

앞으로 3승만 추가하면 프로 출범 후 최다 연승 신기록을 작성한다.

흥국생명이 새로운 명가(名家)로 떠오른 것은 좌우 샹포 김연경과 황연주의 화끈한 공격력 덕이다. 외국인 선수 못지 않은 기량을 갖춘 토종 거포 김

## “리그 3연패 벌써 보이네”

김연경 공격 3개 부문 1위

황연주 서브 에이스 맹타

연경은 지난해 5월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성공적인 재활을 거쳐 스파이크 쇼를 펼치고 있다.

지난 시즌 레이첼 반미터(전 도로공사)에게 득점왕을 내줬던 김연경은 이번 시즌 총 248점을 사냥하며 부문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또 공격종합(성공률 45.72%)과 오픈공격(34.

86%)에서도 각각 1위를 달리며 현역 최고의 스파이크 면모를 뽐내고 있다.

라이트 황연주도 전날 도로공사전에서 역대 1호 통산 서브 에이스 100호 고지를 밟으며 흥국생명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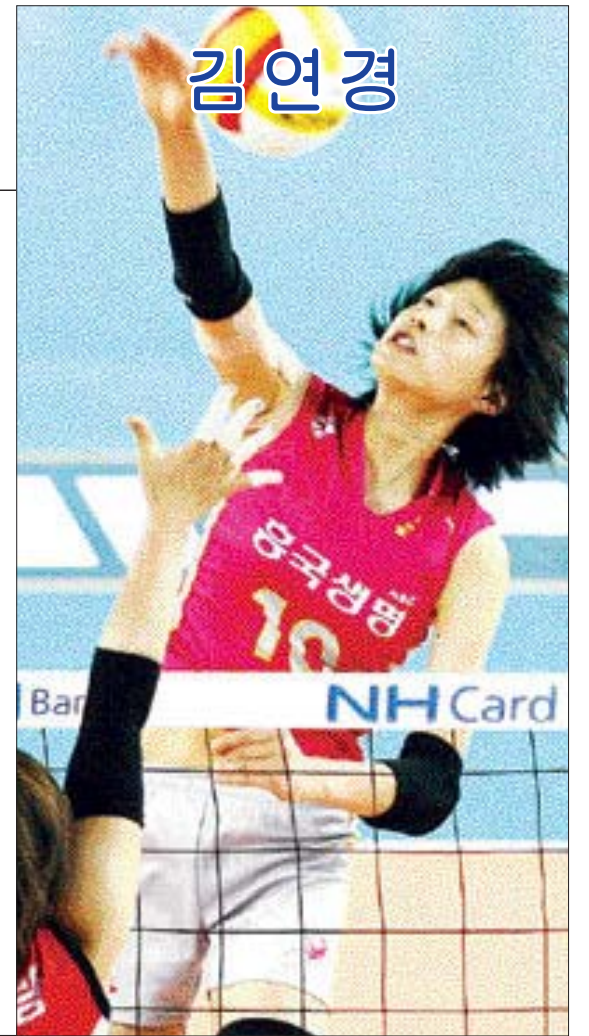
김연경, 황연주와 공격 3각 편대를 이룬 마리 헬렌은 지난 시즌 뛰었던 케یتی 윌킨스에 못 미치지만 탄력 있는 점프와 매서운 스파이크로 공격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여기에 지난 시즌 후 합류한 세터 이효희의 점프 토스와 센터 전민정의 한층 나아진 블로킹과 속공, 리베로 전유리의 철벽 수비도 연승 행진에 밑거름이 됐다.

흥국생명의 최다 연승 기록 수립의 최대 고비는 3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KT&G와 리턴매치.

이번 시즌 1승1패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KT&G도 베테랑 세터 김사나의 정교한 볼 배급을 바탕으로 외국인 선수 페르난다 배티 알비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연경

### “올림픽 핸드볼 아시아 예선 재경기 중립국서 했으면”

대한핸드볼협회, 국제연맹에 촉구

대한핸드볼협회가 재경기 결정이 난 베이징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개최 장소를 중립국으로 해달라고 국제핸드볼연맹(IHF)에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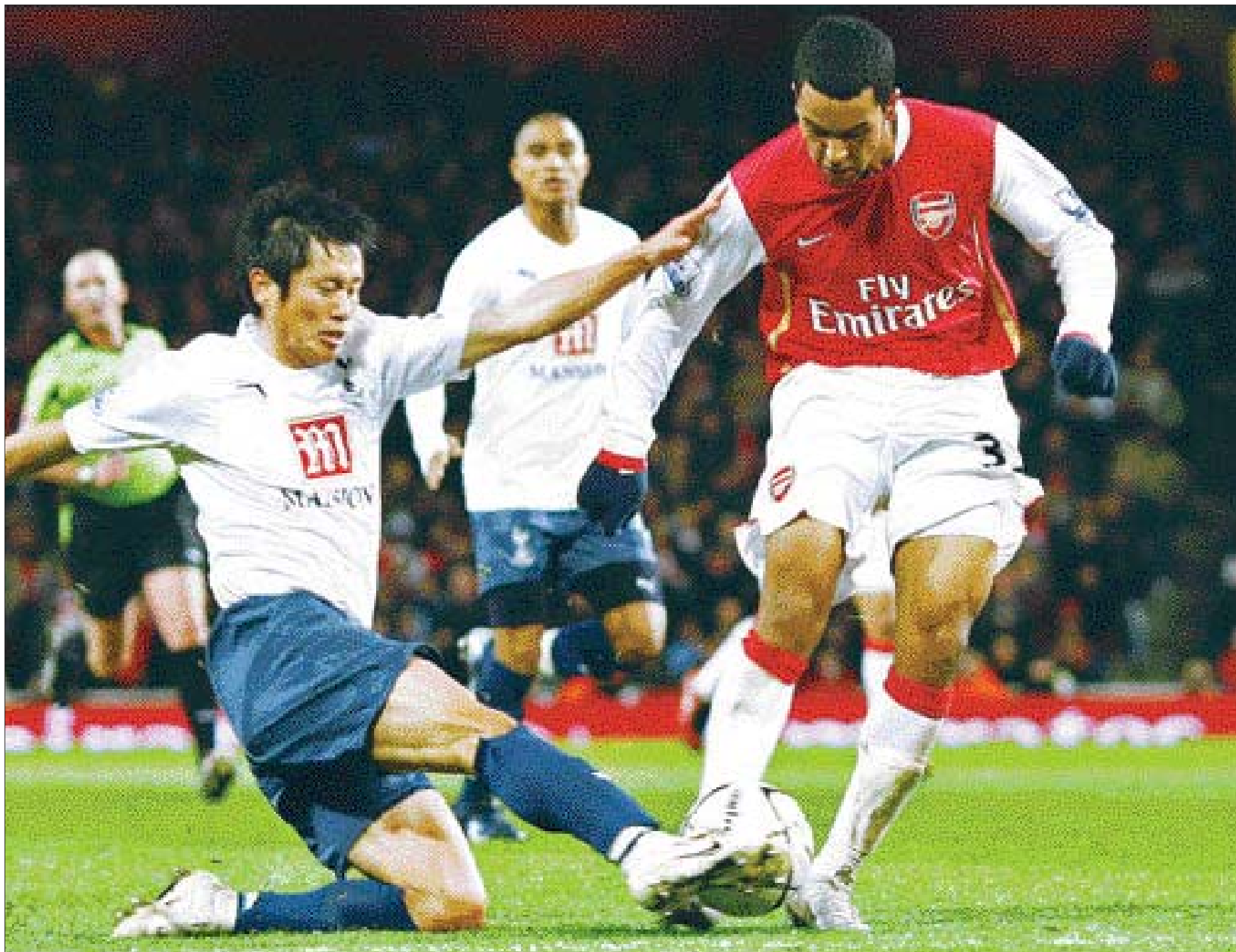
핸드볼협회는 10일 “IHF에 오늘 낮 정형균 상임부회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재경기 개최지를 중립국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IHF에 보내 계획이라고 핸드볼협회는 전했다.

IHF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스위스 바젤에 있는 IHF 본부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아시아 예선 재경기 장소와 일정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경기 후보지는 루마니아, 일본, 이란. 이 가운데 루마니아는 중립국이지만 일본에서 열리는 방식을 밝힌 적이 있어 재경기에서 올림픽 본선행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란의 경우 편파관정의 주역인 아시아핸드볼연맹(AHF)이 주최하는 아시아남자선수권대회와 함께 치르는 방식이어서 재경기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

고병훈 협회 사무국장은 “후보지로 한국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IHF에 보낸 공문에서 ‘장소 선정이 여의치 않으면 한국에서 여는 것도 괜찮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 한국도 후보 자격이 있다”며 “말기는 하지만 중립국 개최가 원칙이어서 유럽의 루마니아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0일 오전 영국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2008 칼링컵 준결승 토트넘과 아스날의 대결에서 토트넘 수비수 이영표(왼쪽)가 아스날 공격수의 드리블을 태클로 저지하고 있다. 토트넘은 아스날과 1-1로 비겼다. /연합뉴스

### 최요삼 선수 추모 복싱대회 열린다

고(故) 최요삼 선수의 뜻을 기리는 추모 복싱 대회가 열린다.

김철기 한국권투위원회(KBC) 회장은 10일 “오는 12월25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민 체육센터에서 고 최요삼 추모 복싱 대회를 여는 방안을 광진구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뜻을 권투위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알리려 등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국내 프로복싱 사상 특종인의 이름이 붙은 대회는 없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같은 장소에서 세계복싱기구(WBO) 플라이급 인터컨티넨탈 타이틀 1차 방어에 성공한 뒤 쓰러져 숨진 최요삼 선수를 기리는 의미에서 추모 복싱 대회가 열리게 되면 최요삼은 국내 프로복싱으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대회에서 후배들이 기량을 겨루는 모습을 지켜보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김철기 한국권투 회장  
“올 12월25일 개최 추진”

구체적인 경기 내용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또 최요삼의 병원 이송이 지연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는 프로복싱 경기가 열릴 때마다 응급 환자를 가장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체육관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미리 지정해두고, 앰블런스도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프로모터 측과 협의해나간다고 덧붙였다.

또 건강보호기금(건보금) 유용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김 회장은 “건보금이 권투위 사무실 운영비와 섞이지 않도록 예금통장과 도장 등을 분리해 운영하고, 가장 권투발전위원회(권발위)를 설치해 건보금을 쓸 때에는 권발위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투위는 최요삼 가족이 미리 낸 병원비 94만원을 건보금으로 처리하는 한편,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의 정부시 신곡동 최요삼 유해를 방문해 국민 성금 모금액 4천100만원을 동생 경호씨에게 전달했다.

한편 권투위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 겸 권투인의 밤 행사를 열 계획이다.

### 체육회, 문화관광부 개칭 요청 인수위에 ‘문화체육관광부’로

대한체육회가 체육행정 전담부처의 명칭을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체육회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현재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개칭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2년 체육부를 신설했지만 1990년 체육청소년부로 개칭했고 1993년에는 문화체육부가 됐다가 1998년 아예 ‘체육’을 빼고 문화관광부로 변경되면서 1국으로 축소됐다.

또한 문화관광부는 2005년 10월 당시 정동채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칭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후 장관이 교체되면서 흐지부지 무산됐다. 체육회는 이날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부처 명칭에 ‘체육’을 명시해 세계 스포츠 10강에 걸맞은 투자와 지원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이영표 ‘강철 체력’ 과시... 평점 7

‘철인’ 이영표(31·토트넘)가 10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며 강철 체력을 과시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은 ‘북런던 라이벌’ 아스날을 21번째 맞대결 만에 이길 뻔했지만 아쉽게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이영표는 10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2008 칼링컵 준결승 1차전에서 변함없이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해 90분을 뛰었고 토트넘은 아스날과 1-1로 비겼다.

이영표는 지난달 7일 유럽축구연맹(Uefa)컵 안드레흐트전 이후 10경기 연속 선발로 나왔고 이 가운데 여덟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며 10경기에서 881분이나 그라운드를 누볐다.

토트넘의 왼쪽 풀백 보강설과 방출설에

시달리고 있는 이영표는 후반 공세를 강화한 아스날의 측면 침투를 막아서는 데 주력했다.

후반 9분엔 떠오르는 잉글랜드 대표팀 새 별 시오 윌컷의 돌파를 힘겹게 저지했다.

그러나 1-0으로 앞서고 있던 후반 34분 에두아르두의 스투페스를 받은 윌컷을 측면에서 태클로 방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문전에서 끌기파 라퐁 체르니와 맞선 윌컷은 가슴으로 볼을 밀어넣어 아스날에 귀중한 동점골을 선사했다.

기선은 토트넘이 잡았다.

전반 14분 아스날 공격수 니콜라스 벤트리의 슈트 수문장 체르니가 막아내 위기를 넘긴 토트넘은 전반 중반 밀물 공세를 퍼부었다.

스티드 말브랑크와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의 슈트 불을 뿜었고 전반 37분 저메인 제나스가 마침내 골문을 열었다.

제나는 베르바토프의 스투페스를 받은 로비 킨이 공간을 열어주자 2선에서 침투해 골키퍼 루카스 파비안스키를 꿰뚫는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1999년 11월 이후 아스날과 20차례 맞대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토트넘은 후반 자기가 나서 대어를 낚는 듯 했다.

그러나 후반 로빈 반 페르시 대신 투입된 에두아르두와 윌컷의 돌파를 막지 못해 무승부에 그쳤다.

토트넘과 아스날은 오는 23일 토트넘 홈 구장인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준결승 2차전을 벌인다. 승자는 다음 달 25일 런던 뉴햄블라구장에서 첼시-에버턴전 승자와 우승컵을 다툰다.

### 10경기 연속 선발 출장 아스날과 1-1 무승부

이영표는 경기 직후 잉글랜드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의 선수별 평점에서 ‘잘 했다’는 평가 함께 7점을 얻었다.

토트넘에선 베르바토프가 평점 9점으로 가장 높았고 아스날에선 동점골을 뽑아낸 윌컷도 평점 6점에 그쳤다.

골프·윈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골프장	시애틀	골프장	시애틀
평	3,450	승	1,700
날관주	4,400	관	1,900
승	8,200	도	2,100

전화 (062)351-0095